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과 상담자 태도가 상담과정 및 상담성과에 미치는 영향

장 재 홍[†]

한국청소년상담원

권 회 경

고려대학교

본 연구는 상담자의 태도와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 정도가 저항, 체험수준과 같은 상담 과정과 상담회기성과 및 최종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밝히는 탐색적 연구이다. 우선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과 태도가 저항 및 체험수준의 변화와 관련된 정도를 살펴본 결과,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은 의사소통의 소극성과 정적 상관을, 문제 인식과 변화에 대한 저항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체험수준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자의 태도 중 공감적 태도는 의사소통의 소극성과 부적 상관을 보였고, 강의판단적 태도는 감정 인식과 표현에 대한 저항 그리고 상담자에 대한 저항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수용적 태도는 감정 인식과 표현에 대한 저항 및 체험 수준의 변화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또한 상담자의 태도에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을 추가할 경우 내담자 저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많이 설명되었다. 둘째,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과 상담자 태도가 상담회기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은 내담자가 제시한 상담문제의 해결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상담자 태도 중 강의판단적 태도는 내담자가 제시한 상담문제의 해결, 상담 과제에 대한 내담자의 자각 긍정적 상담관계형성에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최종성과 측정치들(문제호전에 대한 사례공식화 평정점의 평정치, 내담자가 보고한 문제심각도의 감소)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은 이들 측정치와 정적 상관을, 불안정적 태도는 이들 평정치들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의 의의와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개입적절성, 상담자태도, 저항, 상담성과, 상담과정연구

장재홍은 한국청소년상담원에, 권회경은 고려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음.

[†] 교신저자 : 장 재 홍, (100-824)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 6동 292-61, 한국청소년 상담원
전화 : 2253-7605 E-mail : jangjh@kyci.or.kr

상담의 성과에 기여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상담 및 심리치료 연구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일반적으로 상담성과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내담자, 상담자, 그리고 상호작용 요인의 3 영역으로 나눌 수 있지만 아마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요인으로 상담자의 개입요인을 꼽을 수 있다. 왜냐하면 상담 및 심리치료란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데 돕기 위하여 일정한 개입을 진행하는 것이며, 만약 상담자의 개입방향이 내담자의 문제해결과 심리적 성장에 적절하다면 치료는 효과적일 것이지만, 부적절하다면 여타의 내담자 변인과 상호작용변인과는 상관없이 치료는 실패로 귀결되기 쉽기 때문이다. 이때 상담자 개입요인이라 크게 상담자의 기법측면과 상담자 태도측면을 꼽을 수 있다.

상담자 기법이란 내담자에게 긍정적 행동변화를 일으키거나 치료를 촉진할 목적으로 상담자가 사용하는 특정 방법이라 정의된다(Harper, Bruce, & Sanford, 1981). 여기에는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에서부터 전이를 분석하는 행동까지 광범위한 행동들이 포함되는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상담자 기법에 대한 연구접근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범이론적 접근(pantheoretical approach)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이론에 근거를 둔 접근(theory-based approach)이다.

범이론적 접근에서는 상담자 특정 언어반응 형태(질문, 해석, 지지, 지시 등)와 상담성과간의 관계를 연구하거나(Hill, 1992; Mahalik, 1994), 상담자 개입 후 즉시적으로 나타나는 내담자의 변화를 연구하는 것들이 주를 이루었다(Elliott, Barker, Caskey, & Pistrang, 1982; Hill, Helms, & Tichenor, 1988). 이러한 연구들은 상담자의 개별 언어반응의 효과를 발견하기도 하였지만, 상담성과를 설명하는 상담자 기법의 설명력이 매우 작았으며, 사례에 따라 언어유형의 효과가 달라지는 등 일

관성이 부족했던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접근과 대조적으로 “이론에 근거를 둔 접근”은 각 학파가 내세우는 이론적 접근의 전략과 기법의 효과를 검증할 목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상담성과의 결정적 국면에 대한 지식을 쌓아나가는데 이바지하였다.

특히 주목할만한 방법론은 사례 공식화 접근(case formulation approach)이다. 사례공식화 접근은 내담자 각각에 대해 개별적인 사례 공식화를 작성하고 그 공식화를 근거로 상담과정 및 성과를 연구하는 방법이며, 기존의 집단평균치를 활용하는 전통적 연구방법의 단점들을 보완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인지치료사이자 연구자인 Persons(1991)는 기존의 연구방법은 내담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연구에서 제외시켰으며, 내담자 평가와 상담전략이 연구에서는 연계되어 있지 않고, 내담자 문제에 따라 개별화된 개입전략이 사용되지도 않는다면 전통적인 연구방법을 비판하였다. 또한 Pole(1999)은 특정 기법의 효과를 밝히기 위해 일부 요소를 ‘더하거나’, ‘제외시키는’ 기존의 연구방법은 무의식적 자료의 적시적 해석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만 효과적인 기법들에는 민감하지 않다고 하였다.

사례공식화 접근은 이러한 전통적 방법론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인지치료 학파(Persons, 1991)와 다양한 정신역동 치료학파들(Horowitz, 1989; Horowitz, Rosenberg, Ureno, Kalehzan, & O'halloran, 1989; Perry, Augusto, & Cooper, 1989; Weiss, Sampson, & Mount Zion Psychotherapy Research Group, 1986)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특히 정신역동 치료학파의 연구들은 상담자 기법에 대해 의미있는 연구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내담자에 대한 역동 공식화를 기초로 해석과 같은 상담자 개입의 질적 측면이 상담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여 그 관련성을 보고하였다.

여기서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이란 상담자 개입이 내담자의 사례 공식화와 합치되는 정도, 또는 관련되는 정도로 정의되며, 이 때 사례공식화에는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발생론적 원인, 반복적 갈등요소, 이로 인한 내담자 생활에서의 부적응 결과, 그리고 내담자에 대한 상담계획 및 예후 등이 포함되어 있다.

Weiss의 계획공식화 방법(Plan Formulation Method)을 연구한 연구자들(Collins & Messer, 1991; Messer, Tishby, & Spillman, 1992; Pole, 1999; Silbershatz, Fretter, & Curtis, 1986; Tishby & Messer, 1995)은 치료자 개입의 적절성이 내담자 체험적도의 즉시적 변화, 상담시간내에서의 진전, 최종적 상담성과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Luborsky 학파(Crits-Christoph, Cooper, & Luborsky, 1988)는 CCRT(The Core Conflictual Relationship Theme Method)를 기초로 해석의 정확성을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1년 정도의 치료를 받았던 43명의 환자들에서 해석의 정확성과 상담성과간에 $r=.44$ 의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이것은 일반적인 상담자 기법의 오류나 치료적 동맹의 분산을 제거한 경우에도 상담성과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국내에서는 장재홍과 안창일(1999)이 Weiss 학파의 계획 공식화방법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이 높았던 집단의 내담자는 개입의 적절성이 낮았던 집단에 비해 각 상담회기에서 자신이 해야 할 상담과제에 대해 더 잘 자각하였으며,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이 상담의 최종성과와 정적인 상관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이 어떤 방식으로 상담과정 및 성과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 최근 Pole(1999)은 Weiss

의 ‘통제 숙달 이론(control mastery theory)’을 바탕으로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이 내담자의 체험수준 및 치료동맹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3사례에 대한 집중적 분석에서,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은 내담자 체험수준의 증가, 치료동맹의 증가를 유발하고 있었으며, 다양한 생리적 측정치들, 내담자 얼굴표정과 주관적 보고를 토대로 내담자가 지각한 ‘안전감(safety)’이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과 체험수준 및 치료동맹을 매개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3사례 중 단지 2사례에서만 나타났으며, 여러 가지 측정치 중 몇 가지에서만 나타나고 있고,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이 증가했을 때 안전감 뿐만 아니라 위험감의 징후도 나타나 아직은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이다.

한편,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은 상담장면에서의 중대변인인 저항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최근 Kivlighan, Multon과 Patton(1996)은 상담자의 정신역동적 전략이 상담의 성과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시계열적 방법으로 입증하였다. 그들은 상담자의 저항을 다루는 정신역동적 전략이 증가되면, 상담자의 탐색적 기법의 시도도 증가되며, 다시 이것은 저항 감소 및 성과와 관련이 됨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반복 연구로, Patton, Kivlighan과 Multon(1997)은 저항에 대한 분석적 전략의 정도를 재는 측정치와 내담자 저항 수준 및 성과와의 관련성을 탐색한 결과, 정신역동적 전략의 정도가 증가할수록 저항의 수준은 낮아졌고, 작업동맹이 증가하였으며, 성과는 긍정적이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권희경과 안창일(2000)은 저항을 부각시키는 상담자의 개입이 저항의 수준을 감소시켰다고 보고하였다.

이상과 같이 상담자 개입과 상담과정의 하나인 내담자 저항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은 상담자 개입이 상담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려는

또 하나의 시도로 평가되고 있으며, 상담과정과 성과를 연결시키는 좋은 방법으로 판단된다.

한편 상담자 기법은 상담자 태도의 질과 관계 형성능력에 따라 그 효율성을 달리한다는 많은 주장들과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가령, Frieswyk 등 (1986)은 해석과 치료적 동맹의 관련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내담자 주문제가 대인관계 결핍일 때, 동맹의 발달은 그 자체로 치료적이어서 상담자와 동맹이 잘 형성되면 치료 밖 상황에서 대인관계가 증진될 수 있으며, 그래서 치료 동맹의 확립은 상담자 해석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전제조건이라 하였다. 이러한 언급은 상담 성과를 잘 예측하기 위해서는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 뿐만 아니라 상담자 태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마도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은 그 자체로 상담자 태도와 유의한 관련성을 맺고 있을 지 모른다. 예를 들어 상담자 해석의 적절성은 치료동맹의 증진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개입 적절성 자체가 내담자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는 상담자의 공감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래서 내담자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전문성의 기대가 증진될 수도 있다(장재홍, 1998).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이 치료동맹(working alliance)이나 저항, 그리고 체험수준 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이 상담 태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치료성과나 과정에 영향을 주는지를 밝히는 것이 심리치료 장면에서의 실제적인 관심사들에 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 기법의 한 영역인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의 효과를 연구하고자 하는데, 상담자 태도변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상담의 성과와 과정을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기술함에 앞서 우선, 상담자 태도와

성과에 대한 연구들을 개관하겠다.

상담자 태도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이론적 접근마다 모두 그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설명하는 데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Rogers(1957)는 치료자에 의해 제공되는 무조건적 존중, 공감적 이해, 그리고 일치성은 내담자의 긍정적인 성격변화를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라 하였다.

정신역동적 접근에서는 통찰이나 성격변화 혹은 교정적 정서경험(corrective emotional experience; Alexander, 1961)을 위해서는 공감적이고 허용적인 분위기의 창출, 치료적 동맹이 필수적인 동시에 적절한 시기의 치료자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Dewald, 1974; Greenson, 1967). 이것은 상담자 태도는 성과에 필요하나 충분한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인지 행동적 접근에서도 상담자 태도의 중요성을 인정하기는 하나 그것은 기법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가령, Wessler와 Wessler(1980)는 Rogers의 치료적 조건에 동의하면서, “만약 이런 조건들이 내담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어떤 기법도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한다”고 하였다. 또한 Goldfried (1982)도 상담자의 태도와 치료적 관계는 기법(숙제부과, 노출치료, 역할시연 등)을 효율적으로 적용시키는데 매우 필요한 요인이라 하였다.

실제로 상담자 태도가 이론적 접근을 불문하고 상담관계와 상담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 연구들이 있다. 그 중 하나로, Fisher, Paveza, Kickert, Hubbard와 Grayston(1975)은 실제로 각 이론들을 지향하는 상담자들이 상담에서 취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서로 다른지를 알아보았다. 이들은 인본주의적 정신역동적 그리고 행동적 상담자들의 공감성, 온정성, 그리고 진실성 정도를 평가하여 비교한 결과, 인본주의 상담자들

이 3개 차원의 점수에서 약간 더 높은 경향을 보인 했지만 3집단의 상담자들의 상담 태도들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이것은 이론적 입장과 관계없이 상담자들은 기본적인 치료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담자 태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들은 꽤 비일관된 연구결과들을 보인다. Truax와 Carkhuff(1967)는 공감, 무조건적 존중, 그리고 일치성과 같은 촉진적 조건들을 측정하는 척도를 제작하고, 이러한 조건들이 상담성파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후 많은 연구들(Altman, 1973; Jones, Wynne, & Watson, 1986; Truax & Mitchell, 1971)은 공감 및 촉진적 조건들은 긍정적인 성과(내담자 보고, 상담자 보고, 제 3의 관찰자 보고, 및 객관적 검사에 의해 측정됨)를 가져오게 하는 요인임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한편 다수의 연구들(Beutler, Johnson, Neville, & Workman, 1972; Garfield & Bergin, 1971)에서는 공감 및 촉진적 태도와 상담성과간의 유의미한 관련성을 검증하지 못함으로써, 아직은 상담자의 긍정적 태도에 대한 합의된 결론이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비일관된 결과들과 맥을 같이 하여 Strupp(1973)은 Rogers의 주장을 부분적으로만 수용한다고 하면서, 상담자의 ‘좋은 인간적 관계’는 내담자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 자체로서 충분하지는 않으며, Rogers의 주장이 모든 내담자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Bergin과 Suinn(1975) 역시 “고도로 특수한 내담자 중심적 조건들을 제외하고” 공감 및 다른 촉진적 조건들이 성과를 위한 충분 조건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를 지지하는 최근의 경험적인 연구로, Lambert와 Bergin(1992)에 따르면 공감은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지닌 사람보다는 오히려 가벼운 문제를 가진 내담자들의 치료성과와 더 관련이 된다고 함으로써, 공감의 부분적인 효과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태도와 성과의 관련성을 보다 명료하게 밝히기 위해서 상담자의 태도 이외에 내담자 변인 및 상담자 기술 및 숙련성과 같은 요인의 효과를 통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앞 절의 개관에서 Frieswyk 등(1986)이 기술한 바와 같이, 상담자 태도는 상담자 기법의 효용성에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 당연한 듯 하다. Strupp(1981)은 모든 치료자 기법들은 인간관계의 틀 내에서 작동하는 것이며, 상담자의 기법과 내담자-상담자 관계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서로 얽혀있다”고 하였다. 이런 면에서 상담자-내담자 관계와 상담자 개입은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상담자 태도에 대한 연구로, 권희경(1999)은 상담과정의 상담자 변인으로 상담자 태도와 작업동맹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상담자 태도 척도의 부정적 태도에 해당되는 강요적, 판단적, 불안정적 태도는 내담자의 작업동맹의 유대감 요인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긍정적 태도에 해당되는 온정적, 수용적, 그리고 존중적 태도는 유대감 요인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것은 수용적, 온정적, 지지적 태도를 취할수록 내담자는 유대감을 더욱 느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보다 정교화된 후속연구로, 권희경과 안창일(2000)은 시계열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저항과 상담자 태도의 상호작용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공사례의 상담에서는 상담자의 긍정적 태도가 내담자 저항의 감소를 가져오며, 부정적 태도는 저항의 증가를 가져오는 상호작용이 우세하였다. 이에 비하여 실패사례에서는 내담자 저항은 상담자의 부정적 태도를 이끌었으며, 상담자

의 부정적 태도는 다시 내담자 저항을 증가시키는 상호작용이 우세하였다. 이것은 내담자 저항에 대한 상담자 태도가 이 후 저항여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한 것으로 상담자 태도의 효과를 다시금 강조한 것이다.

이상에서 상담자 기법과 태도가 성과와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개관한 결과, Strupp(1981)의 주장과 같이 기법과 태도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변인들로서, 어느 한 변인의 우월성만을 검증하려 하거나 혹은 두 변인을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성과 연구를 하는 것은 연구 설명력에서 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기법과 태도를 함께 포함시켜, 상담과정에 이 둘이 어떻게 상호연관을 맺고 있는지, 그리고 이 두 요인이 내담자의 저항, 체험수준의 변화와 같은 상담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두 변인이 상담 성과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의 일관된 주장들은 상담자 태도와 상담자 기법의 적절성은 상담과정 및 상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연구방법 측면에서 중대한 한계점을 드러낸다. 선행연구들에서 상담자 태도와 기법은 분리되어 상담성과 및 과정을 연구하는 바, 상담과정에서 드러나는 상담자 기법과 태도의 상대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담자 요인들 중 개입적절성과 상담태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이것이 상담과정의 하나인 저항 및 체험수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성과와는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 기법의 질적인 측

면이 저항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할 것인데, 이것은 상담자의 특정기법과 내담자 저항의 관련성을 대략적으로 살펴본 선행연구들(권희경, 안창일, 2000; Chamberlain, Patterson, Reid, Kavanagh, & Forgatch, 1984; Graff & Luborsky, 1977; Luborsky, Bashrach, Graff, Pulver, & Christoph, 1979)의 한계들을 극복하려는 시도이다.

내담자의 체험(experience) 수준 또한 상담성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체험은 내담자 중심 학파가 제안한 개념으로,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이나 내적 조망에 얼마나 몰입하고 탐색하는지의 정도를 나타낸다. Klein, Mathieu-Coughtan과 Kiesler(1986)는 체험과 관련된 광범위한 연구결과를 요약하였는데, 그들은 이 측정치가 내담자의 변화, 성공적인 상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3가지 연구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 가설 1. 상담자 기법의 적절성과 상담자 태도는 내담자 저항 및 체험수준과 유의한 상관을 보일 것이다.

연구 가설 2. 상담자 기법의 적절성과 상담자 태도는 상담회기의 성과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일 것이다.

연구 가설 3. 상담자 기법의 적절성과 상담자 태도는 최종적 상담성과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일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절차

연구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서 상담자 개입

의 적절성과 상담자 태도간의 관계를 우선 살펴보고, 이들 두 변인이 내담자의 저항 및 체험 수준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은 Weiss, Sampson과 Mount Zion Psychotherapy Research Group(1986)이 개발한 계획 공식화 방법(Plan Formulation Method)을 토대로 하였다. 이것은 Weiss의 '인지적 정신분석 이론(cognitive psychoanalytic theory)'을 기초로 내담자 문제에 대한 사례공식화를 작성하는 방법인데, 그 공식화에는 5요소 -외상(trauma), 목표(goal), 방해물 혹은 병리적 믿음(obstruction 또는 pathogenic belief), 시험(test), 통찰(insights)-가 포함이 된다.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은 이러한 사례 공식화에 비추어 상담자 언어반응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입의 계획 조화성 척도(the plan compatibility scale of intervention)을 사용하여 평가되었다.

연구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서 상담자 태도 및 개입 적절성이 각 상담회기의 성과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상담회기 성과 측정에는 내담자가 응답하는 회기영향척도와 상담 효과 질문지가 사용되었다. 각 내담자마다 3, 8, 13회의 상담회기가 표집되어 총 30회의 축어록을 만들었다. 회기영향 척도 및 상담효과 질문지는 그 상담시간이 끝난 후에 내담자가 작성하였으며, 상담자는 볼 수 없도록 봉투로 봉하게 하였다.

연구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서 상담자 태도 및 개입 적절성이 상담의 최종성과치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최종 상담성파를 측정하기 위해 내담자가 응답하는 최종 상담효과 질문지, 문제 심각도 질문지, 그리고 평정자가 평가하는 계획달성 척도가 사용되었다.

내담자와 상담자

내담자는 서울 시내에 있는 2개 대학 학생상담소 및 개인 상담소에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자진해서 방문한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치료기간은 임의로 한정하지 않았으나, 연구 자료는 15회기 이내에서 합의 종결된 사례들로 구성되었다. 내담자의 평균 연령은 25.5세로, 남자 3명, 여자 7명이었고, 대학생 8명, 회사원 1명, 주부 1명이었다.

치료자는 총 7명으로, 연구의 구체적 목적을 알려주지는 않았으며, 다만 사례 공식화를 작성할 수 있도록 3회기 이내에 상담 흐름을 헤치지는 범위내에서 내담자의 현재 문제, 이와 관련된 개인력과 초기 경험, 내담자의 가족관계와 대인관계에 대해 탐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성별로는 남자 1명, 여자 6명으로, 평균 나이는 37.2세이며, 상담경력은 평균 8.5년, 상담심리전문가는 6명, 전문가 취득과정 중은 1명이었다.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 및 태도 평정척도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 평정 척도

상담자 개입적절성의 측정을 위하여 Caston(1986)이 개발하고 Curtis, Silberschatz, Sampson, Weiss와 Rosenberg(1988)이 보완한 계획조화성 척도를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상담자 개입적절성은 치료자의 개입이 계획 공식화의 내용을 얼마나 잘 언급하고 있는가를 평정하는 것으로, ① 치료자가 언급한 내용이 내담자 계획의 중심적 요소인가 혹은 주변적 요소이거나 애매한 부분인가 ② 구성요소들의 연결 측면에서 단순히 목표만을 포함하고 있는가 혹은 방해물이나 통찰을 목표와 관련짓고 있는가를 평정한다. 이 척도의 범위는 -3점(매우 반계획적인)에서 +3점(매우

계획적인)으로 Likert식 7점 척도로 표현된다. 장재홍과 안창일(1999)이 제작한 개입의 계획 조화성 평정 지침을 활용하여 평정자의 평정에 참고하였으며, 그들에 따르면 분절 조화성에서 복합된 평정자간 급내 상관계수는 .82~.91 정도로 매우 높았으며, 평정자간 동의를 또한 $T=.85 \sim .96$ 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 평정자는 총 5명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32.4세, 상담경력은 7.4년이었다. 이 중 상담심리전문가는 3명, 취득과정 중인 사람은 2명이었다. 각 사례에 대한 평정팀은 사례에 따라 3-4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이 평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각 내담자에 대한 사례공식화가 작성되어야 한다. 지면상 다 언급할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절차는 장재홍과 안창일(1999)을 참고하기 바란다. 평정자들은 연구자가 제작한 계획 조화성 평정 안내 지침을 토대로 약 20시간의 평정훈련을 받았다. 조화성 평정의 준거는 평정자들의 평정 평균이 중앙값 이상이었던 계획 공식화의 목표, 방해물 통찰 문항들이었다. 연구 1, 2에서는 각 회기수준에서 측정된 평정자들의 분절 조화성 점수들의 평균이 측정치로 사용되었으며, 연구 3에서는 이 평균의 총합이 측정치로 사용되었다.

상담자 태도 척도

권희경(1999)이 제작한 8문항의 상담자 태도 평정척도 중 상호상관이 높은 두 문항을 제외한 6개 문항의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6개 문항은 부정적 상담자 태도로 강요판단적 태도, 불안정한 태도, 비몰입적 태도가 사용되었으며, 긍정적 상담자 태도로 공감적 태도, 수용적 태도, 존중적 태도가 사용되었다. 문항에 대한 명료한 정의와 일관된 평정을 위한 세부준거들이 마련되었으며, 높은 평정자간 신뢰도($r=.76 \sim r=.92$)가 확인되

었다.

이 척도는 평정자가 녹음 테이프와 축어록을 이용하여 평정한다. 각 문항은 0점부터 4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0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은 '상당히 그렇다'로 명시되며,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그 문항에 대한 태도가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내담자의 저항 및 체험수준 평정척도

내담자 저항 척도

권희경과 안창일(2000)이 개발한 내담자 저항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제3의 평정자가 녹음테이프와 축어록을 이용하여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전체 척도는 5문항, ① 의사소통의 회피 및 소극성, ② 모호한 의사소통, ③ 감정 인식과 표현에 대한 저항, ④ 문제 인식과 변화에 대한 저항, ⑤ 상담 방식 및 상담자에 대한 저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0점부터 4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4점)로 표현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저항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저항 평정척도의 5개 문항에 대한 평정자간 일치률은 각 문항에 대해 .92~.81의 범위로 꽤 높으며, 요인구조는 직접적 저항과 간접적 저항으로 나뉜다(권희경, 안창일, 2000).

내담자 체험 척도(Experiencing Scale)

체험척도는 Klein, Mathieu, Gendlin과 Kiesler (1969)가 체험이론과 내담자 중심이론을 토대로 제작한 것으로, 내담자의 언어 반응에 담겨있는 내적 자기몰입 및 자각의 질적 특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체험척도는 각각 7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낮은 체험수준에서는 개인적, 주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지각하지 못하며 자신과 관련이 없는 외부 사건을 피상적으로 언급한다(1-2단계). 체험수준이 올라갈수록 개인적 조망이 보다 명료(3단계)해지며, 순간 순간 변화하는 개인의 감정과 내적 체험에 초점을 맞추고(4단계), 자발적인 탐색(5단계)을 하며 새로운 자각들을 통합(6-7단계)해 나간다. 내담자 체험수준의 평정자는 상담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 6명으로, 평정팀은 각 사례 당 3명으로 구성되었다. 평정은 내담자의 각 언어반응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한 회기의 평균값이 측정치로 사용되었다.

상담성과 측정치

상담 성과 질문지

Battle 등(1965)이 제작한 주호소문제(target complaints)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것은 상담 초기에 정했던 상담목표들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내담자가 평정하는 것이다. 2개 이상의 상담 목표를 상담자와 내담자가 논의하여 기입하게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3회기에 실시하여 내담자의 문제를 확인하고, 3, 8, 13회기 직후에 이 문제의 진전 정도를 내담자가 평정하게 하였다. 내담자는 그의 목표에 대한 변화를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였는데, 0점(전혀 변화되지 않았다)에서 4점(매우 좋아졌다)에 반응한다.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가 주관적으로 느끼고 있는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들 2가지의 총합이 측정치가 되었다.

문제 영역별 심각도 질문지

금명자(1994)가 내담자들의 문제 심각도를 통제하기 위해 만든 질문지로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질문지는 대학 상담소에 상담을 신청하는 내담자들이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문제들 9개 영역(원호택, 김순화, 1985)과 그 외의 기

타영역에 대해 0점에서 4점을 매기는 5점 척도로 그 심각도를 내담자가 평정하게 되어 있다. 최저 0점에서 40점까지의 점수를 얻을 수 있다.

회기영향 척도

본 연구의 회기성과 측정치의 하나로, Elliott와 Wexler(1994)가 제작한 것을 장재홍과 안창일(1999)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전체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부분으로 나뉜다. ① 과제영향(task impact)은 내담자가 현재 문제에서 어떤 진전을 경험하는 것(예를 들어, 자신이나 문제 해결에 대한 통찰을 하는 것), ② 관계영향(relationship impact)은 치료자와의 관계에서 긍정적 느낌을 경험하는 것(예를 들어, 치료자로부터 지지 받거나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③ 방해영향(hindering impact)은 치료자로부터 이해 받지 못하고 회기에서 진보가 없어서 짜증나는 것과 같은 부정적 경험들이 포함된다. 장재홍과 안창일(1999)에 따르면 수정판은 원판과 동일한 요인구조를 보였으며, 내적 일치도인 Chronbach α 값에서 과제영향이 .83 관계영향이 .88, 방해영향이 .81로 나타나 신뢰도가 적절하였다.

계획달성 척도

Nathans(1988)이 제작한 Likert식 7점 척도로, -3점 ~ +3점의 범위를 가진 척도이다. 총 4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계획 공식화에서 기술된 ① 목표의 달성, ② 병리적 믿음의 극복, ③ 통찰의 획득, ④ 전체적인 진보를 평정한다. 평정자는 1, 3, 8, 13회기의 축어록을 읽고 치료초기에 비해 13회기에서 치료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를 -3점(목표의 성취, 방해물의 극복, 통찰의 획득에서 후퇴하였다)에서부터 0점(변화가 없었다), +3점(목표의 성취, 방해물의 극복, 통찰의 획득으로 진전되었다)의 Likert식 7점 척도에 평정하게 된다.

계획달성의 평정자는 5명으로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을 평정한 사람과 동일하였다. 3명이 한 팀을 이루어 각 사례를 평정하였다. 장재홍과 안창일(1999)에 따르면, 계획 달성척도의 신뢰도는 복합된 평정자간 급내상관계수에서 $r=.82$ 로 우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전반적 성취의 측정치만을 사용하였다.

결 과

상담자의 개입 적절성 및 태도와 내담자의 저항 및 체험수준간의 관계

먼저,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과 상담자 태도간

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은 상담자 태도 중 비몰입적 태도와 부적 상관($r=-.537, p<.01$), 공감적 태도($r=.409, p<.05$) 및 수용적 태도($r=.375, p<.05$)와는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자가 내담자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개입하는 정도는 상담자의 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상담자의 비몰입적, 수용적, 공감적 태도가 상담자 개입 적절성의 변량을 얼마만큼 설명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3개의 상담자의 태도들은 상담자 개입 적절성 변량의 36.8%를 설명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에서는 이 회귀 계수에 대한

표 1.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과 상담자 태도들간의 상관

개입 적절성	1.00						
강의판단	-.046	1.00					
불안정적	-.317	.027	1.00				
비몰입적	-.537**	-.045	.537*	1.00			
공감적	.409*	-.232	-.469	-.304	1.00		
수용적	.375*	-.062	-.394*	-.355	.423*	1.00	
존중적	.252	-.232	-.123	-.123	.412*	-.163	1.00
	개입적절성	강의판단	불안정적	비몰입적	공감적	수용적	존중적

표 2. 상담자 개입성에 대한 상담자 태도들의 중다 회귀분석표

예언변수	β	R	R^2	ΔR^2
비몰입적	-.537	.537	.289	.289
공감적	.271	.596	.356	.067
수용적	.130	.607	.368	.012

주. 3가지 상담자 태도는 enter 방식으로 투입되었음

표 3. 3개의 상담자 태도들이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을 예측하는 회귀계수에 대한 변량분석

	SS	df	MS	F
회귀	2.475	3	.825	4.860*
잔여	4.243	25	.170	
전체	6.718	28		

주. * $p<.01$

변량분석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상담자 태도가 더 몰입적이고 더 공감적이고 더 수용적일 때, 동시에 상담자의 개입적절성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과 상담자 태도가 내담자의 저항 및 체험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는데, 상담자 태도 중 어떤 요인이 저항 및 체험수준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1단계에서는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을 enter 방식으로, 2단계에서는 상담자 태도들을 stepwise 방식으로 투입하였다. 표 4에서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우선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은 '의사소통의 소극성' 저항의 변량 28.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자의 태도들 중 공감적 태도를 추가할 경우 12.1%의 유의미한 설명량의 변화가 있었다.

표준화 회귀계수를 살펴보았을 때, 내담자의 '의사소통의 소극성' 저항은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과 정적 상관($\beta=.537, p<.001$)을 보이는데 반해, 상담자의 공감적 태도와는 부적 상관($\beta=-.382, p<.05$)을 보이고 있다.

'의사소통의 소극성' 저항이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과 정적상관을 보인다는 이 결과는 상담자의 개입이 정확할수록 내담자가 의사소통을 회피하거나 침묵한다 혹은 역으로 내담자가 침묵하거나 의사소통에 소극적인 경우 상담자가 더 정확하게 개입하게 된다는 두 가지의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는 논의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겠다. 한편, 공감적 태도가 '의사소통의 소극성'과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은 상담자의 공감적 태도가 증가할수록 내담자의 의사소통 소극성 저항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내담자의 '모호한 의사소통' 저항은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과 상담자 태도에 의해 유의하

게 예언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 결과를 표 4에서는 기술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내담자의 '정서인식과 표현에 대한 저항'에 미치는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과 태도의 효과를 살펴보면,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은 '정서인식과 표현에 대한 저항' 변량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했으나, 상담자 태도들 중 강의판단적 태도는 이 저항 변량의 22.5%를 설명하였다. 또한 수용적 태도를 추가할 경우, 12.5%의 유의미한 설명량의 증가가 있었다.

표준화회귀계수를 살펴보았을 때, 내담자의 '정서인식과 표현에 대한 저항'은 상담자의 강의판단적 태도와 정적 상관($\beta=.493, p<.05$)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자가 강의판단적 태도를 보일 경우 내담자의 '정서인식과 표현에 대한 저항'이 증가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상담자의 수용적 태도 또한 '정서인식과 표현에 대한 저항'과 정적 상관($\beta=.382, p<.05$)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내담자가 정서인식과 표현에 대해 저항할 때 상담자는 더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다 또는 역으로 상담자가 더 수용적인 태도를 보일 때 내담자는 정서인식과 표현에 대해 더 저항하게 된다는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이 해석방향과 관련해서는 논의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겠다.

내담자의 '문제인식과 변화에 대한 저항'에 미치는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과 상담자 태도의 효과를 살펴보면,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은 이 저항 변량의 13.8%를 설명하였으며, 상담자 태도들 중 존중적 태도는 13%의 변량을 추가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그리고 표준화 회귀계수를 살펴보았을 때, 내담자의 '문제인식과 변화에 대한 저항'은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beta=-.371, p<.05$) 및 상담자의 존중적 태도($\beta=-.373, p<.05$)와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다.

표 4. 내담자 저항 및 체험수준에 대한 상담자 개입 적절성과 태도의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인	예언변인	β	R	R^2	ΔR^2	ΔF	df
의사소통의 소극성	1. 적절성	.537**	.537	.289	.289	10.958**	1, 27
	2. 상담태도						
	강의판단	.158					
	불안정적	.137					
	비몰입적	-.041					
	공감적	-.382*	.640	.410	.121	5.353**	1, 26
	수용적	-.085					
	존중적	.182					
정서인식과 표현에 대한 저항	1. 적절성	.007	.007	.000	.000	.001	1, 27
	2. 상담태도						
	강의판단	.493*	.475	.225	.225	7.560*	1, 26
	불안정적	.013					
	비몰입적	-.041					
	공감적	.211					
	수용적	.382*	.592	.350	.125	4.814*	1, 25
	존중적	-.127					
문제인식과 변화에 대한 저항	1. 적절성	-.371*	.371	.138	.138	4.321*	1, 27
	2. 상담태도						
	강의판단	-.001					
	불안정적	.136					
	비몰입적	.153					
	공감적	.145					
	수용적	.020					
	존중적	-.373*	.518	.268	.130	4.630*	1, 26
상담자에 대한 저항	1. 적절성	.192	.192	.037	.037	.997	1, 27
	2. 상담태도						
	강의판단	.656***	.684	.468	.431	20.241***	1, 26
	불안정적	.196					
	비몰입적	.046					
	공감적	-.262					
	수용적	-.016					
	존중적	-.113					
체험수준의 변화	1. 적절성	.096	.096	.009	.009	.195	1, 27
	2. 상담태도						
	강의판단	.133					
	불안정적	-.366					
	비몰입적	-.096					
	공감적	-.007					
	수용적	.536*	.492	.242	.233	3.190*	1, 26
	존중적	.147					

주. * $p < .05$ ** $p < .01$ *** $p < .001$

이 결과는 상담자의 개입이 적절할 경우 그리고 상담자의 태도가 존중적일 경우 내담자의 문제인식과 변화에 대한 저항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내담자의 '상담자에 대한 저항'에 미치는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과 상담자 태도의 효과를 살펴보면,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은 내담자의 '상담자에 대한 저항' 변량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나, 강의판단적 태도는 이 저항변량의 매우 많은 43.1%를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표준화 회귀계수를 살펴보았을 때, 강의판단적 태도와 이 저항이 높은 정적 상관($\beta=.659, p<.001$)을 보인바, 상담자가 강의판단적 태도를 보일 경우, 내담자는 상담자에 대해 강한 저항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과 상담자 태도가 내담자의 회기 수준에서의 체험수준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은 내담자의 체험수준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담자 태도 중 수용적 태도는 내담자의 체험수준과 유의한 정적 상관($\beta=.536, p<.05$)을 나타냈다. 이는 상담자가 수용적 태도를 취할 경우 내담자는 자신의 감정, 생각에 대해 더 많이 몰입하고 탐색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들을 요약하면, 첫째, 상담자의 태도 중 비몰입적 태도, 공감적 태도, 수용적 태도는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이 3개의 상담자 태도는 상담자 개입 적절성 변량의 36.8 %를 설명하고 있었다. 이는 상담자 태도와 개입의 적절성이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내담자의 저항은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과 상담자 태도를 함께 고려했을 경우 더 잘 설명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저항 현상들은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에 의해서 보다는 상담자 태도에 의해

더 많이 예언되고 있었으며, 특히 상담자의 강의 판단적 태도는 내담자의 '감정인식과 표현에 대한 저항', '상담자에 대한 저항'에 강한 영향을 주는 중대한 변인이었다. 셋째, 내담자의 체험수준의 변화는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에 의해서는 예언되지 않았으나, 상담자 태도 중 수용적 태도에 의해 유의하게 예언되었다. 넷째,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은 다양한 저항 현상들 중 내담자의 '문제인식과 변화에 대한 저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 개념이 내담자의 당면문제의 인식과 변화에 초점화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은 상담자 기법의 적절성과 상담자 태도는 내담자 저항 및 체험수준과 유의한 상관을 보일 것이라는 연구 가설 1을 지지하는 것이다.

상담자의 개입 적절성 및 태도와 상담회기 성과 간의 관계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과 상담자 태도가 상담회기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예언변인으로는 1단계에서는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을 enter 방식으로, 2단계에서는 상담자의 5가지 태도들을 stepwise 방식으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상담효과 질문지와의 관계를 보면,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은 각 상담회기에서 측정된 상담효과변량의 19.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담자의 태도들 중 강의판단적 태도를 추가할 경우, 35.1%의 유의미한 설명량의 변화가 있었다.

다음으로 상담회기영향 척도의 측정치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은 과제

표 5. 회기성과치들에 대한 상담자 개입 적절성과 태도의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인	예언변인	β	R	R^2	ΔR^2	ΔF	df
상담 효과	1. 적절성	.440 *	.440	.194	.194	6.480 *	1, 27
	2. 상담태도						
	강의판단	-.593 **	.738	.544	.351	20.03 **	1, 26
	불안정적	-.240					
	비몰입적	-.124					
	공감적	-.091					
	수용적	-.035					
	존중적	-.116					
과제 영향	1. 적절성	.120	.120	.014	.014	.391	1, 27
	2. 상담태도						
	강의판단	.677 ***	.689	.474	.460	22.75 ***	1, 26
	불안정적	-.057					
	비몰입적	-.043					
	공감적	.253					
	수용적	.056					
	존중적	.024					
관계 영향	1. 적절성	-.208	.208	.043	.043	1.219	1, 27
	2. 상담태도						
	강의판단	-.417 *	.466	.217	.174	5.768 *	1, 26
	불안정적	-.019					
	비몰입적	.042					
	공감적	.062					
	수용적	.193					
	존중적	.059					

주. * $p < .05$ ** $p < .01$ *** $p < .001$,

1단계에서는 enter 방식으로, 2단계에서는 stepwise 방식으로 투입함

방해영향은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과 태도에 의해 예언되지 않아 제시하지 않았음

영향, 관계영향, 방해영향의 변량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반면, 상담자의 태도 중 강의판단적 태도는 과제영향의 46% 변량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표준화회귀계수를 살펴보았을 때, 강의판단적 태도는 과제영향과 매우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

다($\beta = -.677$, $p < .001$). 또한 관계영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상담자의 강의판단적 태도는 관계영향 변량의 17.4%를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었고, 표준화회귀계수를 살펴보았을 때 관계영향과 중간 정도의 부적 상관($\beta = -.417$, $p < .05$)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 및 상

담자 태도는 방해영향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요약하면, 첫째,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은 내담자가 호소하고 있는 당면문제의 변화를 잘 예언하지만, 내담자가 각 상담회기에서 지각하는 과제영향, 관계영향, 방해영향을 예언하지 못하였다. 둘째, 상담자의 태도 중 강의판단적 태도는 상담회기성과에서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데, 내담자의 호소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강한 부정적 영향을 행사하며, 각 상담회기에서 내담자의 상담과제에 대한 자각(예를 들어, 자신이나 문제해결에 대한 통찰을 하는 것)을 막고, 상담자-내담자의 긍정적 관계형성(예를 들어, 치료자로부터 지지받거나 더 가까워진 느낌)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상담자 기법의 적절성과 상담자 태도가 상담회기성과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일 것이다”라는 연구 가설 2를 부분적으로만 지지하는 것이라 결론 내릴 수 있다.

상담자의 개입 적절성 및 태도와 최종 상담성과와의 관계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과 상담자의 태도가 15회

정도 단기상담의 최종성과와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은 제3의 평정자에 의한 내담자문제인식 및 문제해결정도, 즉 계획 달성 정도($r=.683, p<.05$)와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을, 그리고 내담자가 보고한 전반적인 문제 심각도의 완화($r=.668, p<.05$)와도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내담자 평정에 의한 내담자 호소 문제의 해결정도인 상담성과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정적 상관의 경향성($r=.560, p=.09$)을 보였다.

또한 상담자의 태도 중 불안정적 태도는 평정자 평정에 의한 내담자 문제의 해결($r=-.712, p<.05$) 및 내담자가 보고한 문제심각도의 완화($r=-.691, p<.05$)와 높은 부적상관을 보였다.

또한 상담자 개입적절성과 상담자태도의 두 변인은 내담자가 상담에서 호소한 문제 해결(상담성과 질문지)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부적 상관 경향성을 드러냈다($r=-.614, p=.06$).

또한 존중적 태도도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내담자가 보고한 문제심각도의 완화($r=.608, p=.06$) 및 내담자가 호소한 문제해결($r=.550, p=.10$)과 정적 상관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표 6. 상담자 태도 및 상담자 개입 적절성과 상담 최종성과 측정치간의 상관.

	개입적절성	상담자 태도					
		강의판단적	불안정적	비몰입적	공감적	수용적	존중적
평정자보고							
계획달성	.683 *	-.292	-.712 *	-.481	.330	.270	.461
내담자보고							
문제심각도 완화	.668 *	-.470	-.691 *	-.420	.491	.321	.608
상담성과	.560	-.378	-.614	-.463	.197	.327	.550

주. * $p<.05$ ** $p<.01$

이러한 결과는 상담자의 개입이 적절할수록 전 체적으로 상담효과가 증진되며, 상담자가 불안정 적 태도(상담자가 상담에 대해 자신감을 잃고, 내담자 문제 및 태도에 대해 불편감을 느끼거나 혼란스러워 하는 태도)는 상담성과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결과를 통해 상담자 기법의 적절성과 상담자 태도가 상담 최종성과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일 것이라는 연구가설 3이 지지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상담자 태도와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 정도가 상담과정 변인인 내담자의 저항과 체험수준, 그리고 상담회기성과 및 최종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는 탐색적 연구이다.

우선,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과 상담자 태도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은 상담자 태도 중 비몰입적 태도, 공감적 태도 및 수용적 태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이 상담자 태도들은 상담자 개입 적절성 변량의 36.8%를 설명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이 상담자 태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상담자가 내담자에 더 몰입하고, 더 수용적이고, 더 공감적인 태도를 보일 때, 상담자는 내담자 문제를 더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결과는 상담자의 기법과 태도가 엄격하게 분리될 수 없다는 Strupp(1981)의 주장을 확인하는 것이다.

상담자의 태도와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이 내담자의 저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내담자 저항은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과 상담자 태도를

함께 고려했을 경우 더 잘 설명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저항 현상들은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에 의해서 보다는 상담자 태도에 의해 더 많이 예언되고 있었으며, 내담자의 체험수준 또한 상담자 태도의 하나인 수용적 태도에 의해서만 예언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과정 중에 일어나는 내담자 저항과 체험수준의 변화는 상담자가 논리적으로 얼마나 내담자 문제에 맞게 개입했는가 보다는 상담자가 상담에서 보여준 태도에 의해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과 내담자의 '의사소통의 소극성' 저항이 정적 상관을 보이는 현상은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이 결과는 상관연구가 가지는 자체의 약점으로 인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상담자 개입이 정확할수록 내담자가 의사소통을 회피하거나 침묵한다 혹은 역으로 내담자가 침묵하거나 의사소통에서 소극적일 경우 상담자는 명료화, 해석과 같은 내담자 문제에 더 핵심적인 개입을 하게 된다고 해석되어 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단기 정신역동 치료기들(Davanloo, 1978; Sifneos, 1976)은 적절한 상담자의 개입이 내담자에게 어느 정도의 불안을 유발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와 유사하게 장재홍과 안창일(1999)은 상담자의 개입 적절성이 높았던 내담자들이 상담자의 개입 적절성이 낮았던 내담자들에 비해 그들의 상담회기를 더 긴장되고 순조롭지 못한 것으로 지각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Pole(1999)은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이 높은 경우 내담자는 '안정감'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또한 '위협감'을 나타내기도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기존문헌과 연구들을 참고해 본다면,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이 내담자의 안정감 혹은 저항 감소와 단순히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상담실제에서도 내담자에 따라 혹은 상담자 개

입의 맥락에 따라, 적절한 상담자 개입도 더 많은 내담자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또한 역으로 침묵하고 비표현적인 내담자에게는 상담자가 더 강도 높고 더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추후의 정교한 연구가 요망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이 내담자의 체험수준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자의 정확한 해석이 내담자의 즉시적 체험수준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Silberschatz, Fretter와 Curtis(1986)의 연구결과, 그리고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이 회기 수준에서 체험수준의 변화와 관련이 있었다는 Pole(1999)의 결과와는 불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일치는 사용된 연구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 같다. 그들은 상담자 개입의 전후에 있었던 내담자의 체험수준의 변화를 측정치로 사용한 것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상담회기의 체험수준 평균을 사용하여 내담자 체험수준의 예민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불일치가 연구방법의 차에 기인한 것인지 혹은 실제로 치료자의 개입이 체험수준과 무관한 것인지는 추후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한편, 상담자의 수용적 태도는 내담자의 체험수준과 정적 상관을 보이는 동시에, 내담자의 정서인식과 표현의 저항'과도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 보여서는 이러한 결과가 상호 모순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내담자의 체험이 '정서인식과 표현의 저항'과 정반대의 개념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다. 개념적으로 볼 때, 내담자의 체험은 내담자가 외부 사건을 피상적으로 언급하는 것, 자신의 감정과 내적 체험에 초점을 맞추고 탐색하는 것, 새로운 자각들을 통합해 가는 것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다. 반면에 '정서인식과 표현의 저항'은 단순히

내담자의 정서적 표현과 인식에 관한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체험수준과 '정서인식과 표현의 저항'간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r=-.147$, n.s.).

다양한 저항현상들은 상담자 태도에 의해 많이 설명되고 있었다. 그 결과를 요약해 보면 상담자의 강의판단적 태도는 '정서인식과 표현에 대한 저항', 그리고 '상담자에 대한 저항'을 강하게 불러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감적 태도 및 존중적 태도는 각각 '의사소통의 소극성 저항', '문제인식과 변화에 대한 저항'과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조성호, 1997; Mahalik, 1994; Patterson & Forgatch, 1985)에서 밝혀진 치료자의 지시적 반응들은 내담자 저항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들과 일관된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보다 상담자는 비판적, 판단적 태도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공감적 존중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내담자 저항을 극복하는 지름길이며, 이는 상담의 성과와 직결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과 상담자 태도가 상담회기성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은 회기수준에서 내담자 호소문제의 해결을 상당 부분 예언하고는 있지만, 상담과제에 대한 내담자의 진전되는 느낌(과제영향), 내담자-상담자 관계가 진전되는 느낌(관계영향), 그리고 상담 방해적 요소(방해영향)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못하였다. 오히려 상담자의 강의비판적 태도는 회기시점에서 내담자 호소문제의 해결, 상담과제에 대해 진전되는 느낌, 관계형성의 진전과 매우 강한 부적상관을 보여 상담자가 각 회기에서 보여준 태도에 따라 내담자의 상담효과에 대한 지각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과 최종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은

평정자가 사례공식화에 비추어 평정한 내담자문제의 해결, 그리고 내담자가 언급한 전반적 문제 심각도의 감소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은 내담자가 상담 중 호소한 문제의 해결과 매우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맥을 같이 하여 상담자 태도 중 불안정적 태도(상담자가 상담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내담자의 문제, 태도에 대해 불편감을 느끼거나 혼란스러워 하는 태도)가 최종성과 측정치와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러한 태도는 일반적으로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자신감을 잃었을 때 드러내는 태도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본다면 상담자 태도는 저항과 체험수준 등의 상담과정과 상담성가에 전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나, 상담자 기법의 적절성은 내담자가 호소하고 있는 당면문제의 인식과 변화에 주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과정 변인 및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상담자 기법의 적절성과 상담자 태도를 함께 연구하여 저항 및 체험수준과 같은 과정변인에서, 그리고 상담성과 측면에서 이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최초로 탐색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상담자의 태도 또한 상담과정과 성과에 강력하게 영향을 주며, 특히 강의비판적 태도 및 불안정적 태도와 같은 태도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셋째,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은 내담자 호소문제의 해결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며, 간접적으로 상담자 태도에 영향을 주어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채택한 방법이 상관연구여서 변인들간의 인과관계 해석에 제한점이 있다. 예

를 들어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은 '의사소통의 소극성' 저항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었지만 무엇이 선행되어 일어났는지는 밝힐 수 없었다. 따라서 추후연구는 이들 변인들간의 원인관계가 잘 드러나는 방식의 연구, 예를 들어 개별사례에 대해 전체 상담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하거나 시계열 분석방법을 통한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수행되기를 희망한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결과의 일반화에서 제한점이 있다. 우선 선택된 사례들은 대학생들 주 대상으로 한 단기상담이며 문제의 심각도 또한 중간수준이고 상담성과도 중간수준의 사례들이었다. 따라서 더 심각한 사례에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조심스럽다. 셋째, 분석에 사용된 사례수가 비교적 적은 편이라 검증력(test power)이 크지 못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권희경 (1999). 상담자 태도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1(2), 65-84.
- 권희경 (2000). 내담자 저항감소와 상담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 - 상담자 태도 및 저항에 대한 개입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희경, 안창일 (2000). 내담자 저항과 저항에 대한 상담자 개입이 상담지속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2), 33-53.
- 권희경 (2001). 성공 및 실패 사례에서의 상담자 및 내담자 저항과 상담자태도의 상호작용 패턴.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9-36.
- 금명자 (1994). 상담관계와 내담자 체험수준에 따른 상담자 개입 패턴의 즉시적 성과. 서

- 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재홍 (1998). 해석 기법에 대한 이해: 정신역동적 입장에서. *인간이해*, 19, 25-49.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
- 장재홍, 안창일 (1999). 계획공식화 방법에 의한 심리치료 과정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1(2), 85-113.
- 조성호 (1997). 내담자 저항과 내담자 반발성, 상담자 개입 특성 및 작업동맹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원호택, 김순화. (1985). 대학생의 스트레스요인에 관한 일연구. *학생연구*, 20(1),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Alexander, F. (1961). *The scope of psychoanalysis*. New York: Basic Books.
- Altman, H. A. (1973). Effects of empathy, warmth, Genuineness in the initial counseling interview.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12, 225-228.
- Basch, M. (1982). Dynamic psychotherapy and its frustration. In P. L. Wachtel (Ed.), *Resistance: Psychodynamic and behavioral approaches*. New York: Plenum Press.
- Battle, C. G., Imber, S. B., Hoehn-Saric, R., Stone, A. R., & Frank, J. D. (1965). Target Complaints and criteria of improvements.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20, 184-192.
- Bergin, A. E., & Suinn, R. M. (1975). Individual psychotherapy and behavior therapy. In M. R. Rosenzweig & L. W. Porter (Ed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pp. 509-556). Palo Alto, CA: Annual Reviews.
- Beutler, L. E., Johnson, P. T., Neville, C. W., & Workman, S. N. (1972). "Accurate empathy" and the A-B dichotom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8, 372-375.
- Butler, S. F., & Strupp, H. H. (1986). Specific and nonspecific factors in psychotherapy: A problematic paradigm for psychotherapy research. *Psychotherapy*, 23, 30-40.
- Caston, J. (1986). The reliability of the diagnosis of the patient's unconscious plan. In Weiss, J., Sampson, H., & the Mount Zion Psychotherapy Research Group (Eds.), *The psychoanalytic process: Theory, clinical observation, and empirical research*. New York: Guilford Press
- Chamberlain, P., Patterson, G., Reid, J., Kavanagh, K., & Forgatch, M. (1984). Observation of client resistance. *Behavior Therapy*, 15, 144-155.
- Collins, W., & Messer, S. B. (1991). Extending the Plan Formulation Method to an object relations perspective: Reliability, stability, and adaptability. Psychological Assess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 75-81.
- Crits-Christoph, P. C., Cooper, A., & Luborsky, L. (1988). The accuracy of Therapist' interpretations and the Outcome of Dynamic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4), 490-495.
- Crits-Christoph, P., Luborsky, L. Dahl, L., Popp, C., Mellon, J., & Mark, D. (1988). Clinicians can agree in assessing relationship pattern in psychotherapy: The core conflictual relationship theme method.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5, 1001-1004.
- Curtis, J. T., Silberschatz, G., Sampson, H., Weiss, J., & Rosenberg, S. E. (1988). Developing reliable psychodynamic case formulation: An illustration of the plan diagnosis method. *Psychotherapy*, 25, 256-265.
- Davanloo, H.(Ed.) (1980). *Basic principles and techniques*

- in short-term dynamic psychotherapy*. New York: Spectrum Publications.
- Dewald, P. A. (1978). 정신치료의 이론과 실제.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dividual Psychotherapy*]. (김기석 역). 서울: 고대출판사 (원전은 1974에 출판)
- Elliott, R., Barker, C. B., Caskey, N. & Pistrang, N. (1982). Differential helpfulness of counselor verbal response mod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9, 354-361.
- Elliott, R., & Wexler, M. M. (1994). Measuring the impact of sessions in process-experiential therapy of depression: The session impacts sca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 166-174.
- Fisher, J., Paveza, G. J., Kickert, N. S., Hubbard, L. J., & Grayston, S. B. (1975). The relationship between theoretical orientation and therapists' empathy, warmth, and genuinen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2, 399-403.
- Frieswyk, S. H., Allen, J. G., Colson, D. B., Coyne, L., Gabbard, G. O., Horwitz, L. & Newsom, G. (1986). Therapeutic alliance: Its place as a process and outcome variable in dynamic psychotherapy researc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 32-38.
- Garfield, S. L., & Bergin, A. E. (1971). Therapeutic conditions and outcom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7, 108-114.
- Goldfried, M. R. (1982). Resistance and clinical behavior therapy. In P. L. Wachtel (Ed.), *Resistance: Psychodynamic and behavioral approaches*. New York: Plenum Press.
- Graff, H., & Luborsky, L. (1977). Long-term trends in transference and resistance: A quantitative analytic method applied to four psychoanalyses.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25, 471-490.
- Greenson, R. (1967). *The technique and practice of psychoanalysi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Harper, F. D., & Bruce-Sanford, G. G. (1981). Factors affecting client change in individual counseling: Current status and theoretical speculations. In S. D. Brown & R. W. Lent (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New York: Wiley.
- Hill, C. E. (1992). Research on Therapist Techniques in Brief Individual Therapy: Implications for Practitioner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0(4), 689-711.
- Hill, C. E., Helms, J., Tichenor, V., Spiegel, S. B., O'Grady, K. E., & Perry, E. S. (1988). The effects of therapist response modes in brief psychotherap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 222-233.
- Horowitz, M. J. (1989). Relationship schema formulation: Role-relationship models and intrapsychic conflict. *Psychiatry*, 52, 260-274.
- Horowitz, L. M., Rosenberg, S. E., Ureno, G., Kalehzan, B. M., & O'halloran, P. (1989). Psychodynamic formulation, consensual response method, and interpersonal problem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 599-606.
- Jones, E., Wynne, M. F., & Watson, D. D. (1986). Client perception of treatment in crisis intervention and longer-term psychotherapies. *Psychotherapy*, 23, 120-132.
- Kivlighan, Jr. D. M., Multon, K. D., & Patton, M. J. (1996). Development of the Missouri Addressing Resistance Scale. *Psychotherapy*

- Research*, 6(4), 291-308.
- Klein, H. K., Mathieu, P. L., Gendlin, E. T., & Kiesler, D. J. (1969). *The Experiencing Scale : A Research and Training Manual*.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Extension Bureau of Audio-visual Instruction.
- Klein, H. K., Mathieu-Coughlan, P., & Kiesler, D. J. (1986). The Experiencing scale. In greenberg, L. S., & Pinsof, W. M. (Eds.) *The Psychotherapeutic Process: A Research Handbook* (pp 21-71).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Lambert, M. J., & Bergin, A. E. (1992).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psychotherapy research. In D. K. Freedheim (Ed.), *History of psychotherapy: A recent change* (pp. 360-390).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Luborsky, L. (1976). Helping alliance in psychotherapy: The groundwork for a study of their relationship to its outcome. In J. L. Claghorn (Ed.), *Successful Psychotherapy*. New York: Brunner/Mazel.
- Luborsky, L. (1984). *Principles of psychoanalytic psychotherapy: A manual for supportive-expressive treatment*. New York: Basic Books.
- Luborsky, L., Bachrach, H., Graff, H., Pulver, S., & Christoph, P. (1979). Preconditions and consequences of transfer interpretations: A clinical-quantitative investigation.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67, 391-401.
- Mahalik, J. R. (1994). Development of the client Resistance Sca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1), 58-68.
- Messer, S. B., Tishby, O., & Spillman, A. (1992). Taking context seriously in psychotherapy research: Relating therapist interventions to patients progress in brief psychodynamic 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 678-688.
- Nathans, S. (1988). *Plan Attainment: An individualized measure for assessing outcome in psychodynamic psychotherapy*.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9, 08B.
- Norville, R., Sampson, H., & Weiss, J. (1996). Accurate interpretation and brief psychotherapy outcome. *Psychotherapy Research*, 6, 16-29.
- Patterson, G. R., & Forgatch, M. S. (1985). Therapist behavior as a determinant for client noncompliance: A paradox for the behavior modifie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 6, 846-851.
- Patton, M. J., Kivlighan, Jr. D. M., & Multon, K. D. (1997). The missouri psycho-analytic counseling research project: Relation of changes in counseling process to client outcom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4 (2), 189-208.
- Perry, J. C., Augusto, F., & Cooper, S. H. (1989). Assessing psychodynamic conflicts: I. Reliability of the Idiographic Conflict Formulation Method. *Psychiatry*, 52, 289-301.
- Persons, J. B. (1991). Psychotherapy outcome studies do not accurately represent current models of psychotherapy: A proposed remedy. *American Psychologist*, 46, 99-106.
- Pole, N. (1999). *Client Appraisals of Danger and Safety in Psychotherapy and its Physiological, Facial and Subjective Correlates*.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Rogers, C. R. (1957).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of therapeutic personality change.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1, 95-103.

- Sifneos, P. E. (1976). *Short-term dynamic psychotherapy evaluation and technique*. New York: Plenum Press.
- Silberschatz, G., Fretter, P. B., & Curtis, J. T. (1986). How do Interpretations influence the Process of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5), 646-652.
- Strupp, H. H. (1973). On the basic ingredients of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1, 1-8.
- Strupp, H. H. (1981). *Toward the refinement of time-limited dynamic psychotherapy*. In S. Budman (Ed.). *Forms of brief therapy*. New York: Guilford.
- Tishby, O., & Messer, S. B. (1995). The relationship between plan comparability of therapist interventions and patient progress: A comparison of two plan formulations. *Psychotherapy Research*, 5, 76-88.
- Truax, C. B., & Carkhuff, R. R. (1967). *Toward effective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Chicago, Aldine.
- Truax, C. B., & Mitchell, K. M. (1971). Research on certain therapist interpersonal skills in relation to process and outcome. In A. E. Bergin & S. L. Garfield (Eds.),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behavior change*. New York: Wiley.
- Weiss, J., Sampson, H., & the Mount Zion Psychotherapy Research Group. (1986). *The psychoanalytic process: Theory, clinical observation & empirical research*. New York: Guilford Press.
- Wessler, R. A., & Wessler, R. L. (1980). *The principle and practice of Rational Emotive Therapy*. San Francisco: Jossey Bass.

원 고 접 수 일 : 2002. 6. 30
수정원고접수일 : 2002. 8. 20
게 재 결 정 일 : 2002. 9. 7

The Impacts of Accuracy of Counsellor's Intervention and Counsellor's Attitudes on the Counseling Process and Outcomes

Jae-Hong Jang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Hee-Kyung Kwon

Korea University

This study was aimed to evaluate the impacts of the counselor attitude and the accuracy of counselor's intervention on the counseling process variables such as client's resistance and experiencing level, on the session impacts and on the counseling outcomes. At first, we evaluated the impacts of the accuracy of counselor's intervention and the counselor attitude on client's resistance and experiencing level. The accuracy of counselor's intervention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the passivity in communication', one of the client's resistance, and no correlation with the client's experiencing level. The empathic attitude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resistance to problem awareness and change'. The critical attitud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resistance to awareness about emotion and emotional expression' and 'the resistance to counselor'. And the acceptive attitud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passivity in communication' and experiencing level. And also the client's resistance was better explained when the counselor attitude variable added to the accuracy of counselor's intervention in multiple correlation analysis. Second, we try to test the effects of the accuracy of counselor's intervention and the counselor attitude on the session outcome. The accuracy of counselor's intervention showed a high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decrease in client's target complaint. And the counselor's critical attitude show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decrease in client's target complaint, and with the increase in client's awareness for session task and in the establishment of client-counselor relationship by Session Impact Scale. Third, we examined the effects of the accuracy of counselor's intervention and the counselor attitude on the total outcome. The accuracy of counselor's intervention showed a high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decrease in client's target complaints at last session. and with Plan Attainment, the measures rated in base of case formulation. The unstable attitude was also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decrease in client's target complaints at last session, and with plan attainment scale rated by rater teams. At last,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as dicussed.

Key Words : accuracy of intervention, counselor attitude, client's resistance, counseling outcome, counseling process